

심정지 조선대생, 바로 옆 조선대병원 응급실 왜 못 갔나

100m 떨어진 응급실 의사 2명 응급처치하느라 연락 안돼 전남대병원 이송 전날 과음 추정, 학내서 발견...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 '위독' 전남대병원도 응급실 당직 교수 2명 뿐...우려했던 응급실 공백 드러나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된 학생의 의료공백 사태 때문에 직선거리로 100m인 조선대병원 응급실이 아니라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선대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의료사태로 축소 운영을 하는 데다 다른 응급환자 처치를 하느라 사실상 응급환자 이송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교수 4명(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각 2명)이 매일 밤 광주·전남의 중증 응급환자를 전담하고 있어 환자 행방이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

분께 광주시 동구 조선대 체육대학공원에서 A(여·19)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을 지나던 조선대 환경미화 직원이 "공원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출동 당시 심정지상태였던 A씨는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호흡은 되찾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대학 1학년생으로, 전남 동아리 농촌 봉사활동 해단식에 참여해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 인근 술집 등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자리를 옮기며 밤새 술을 마셨다. A씨가 발견된 조선대 체육대학공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이 술을 마신 일행들은 모두 귀가해 구조 당시 공원에는 A씨만 남아 있었으며, 인근에는 A씨 등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병 5병이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술을 마셨던 일행들은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는 다른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회복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제는 심정지 상태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A씨는 발견장소와 불과 100m 거리인 조선대병원 응급실이 아닌 이보다 300m정도 떨어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점이다. 당시 소방대원은 가장 먼저 인근의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영상통화를 활용한 '스

마트 의료 지도'를 요청했다.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하면서 요청을 했지만 의료진은 '처치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후 소방대원은 응급실 이송을 위해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두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 의료진 2명 중 한 명은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는 장천공으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할 환자에 대한 처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조선대병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은 의료진이 심각한 체력적 한계에 놓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타진료와 전문의의 지원을 받아 응급실 근무에 투입하기로 한 첫날로 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 각 1명이 응급환자를 전담하고 있었다.

소방대원은 매뉴얼에 따라 다음으로 가까운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문의를 했다. 다행히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여력이 있어 A씨가 이송된 것이다.

당시 전남대병원에서는 2명의 응급의학과 교수가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전남대병원 응급실에도 다른 응급환자가 몰려있었다면 응급환자의 이송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야간에 발생하는 광주·전남의 중증 응급환자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교수 4명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사건·사고가 잦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의정갈등으로 필수의료현장인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빠진 공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 상급병원의 응급실이 위기 상황인데 자칫 응급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되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 시간 강사들,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승소

조선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시간강사 8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7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소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각 27만~3900여만원을 각각 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1주 15시간 이상) 미달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시간강사·겸임교수·초빙객원교수 등 직책으로 조선대에서 근무하다 2019년 8월 퇴직

했다. 이들은 학기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는 사정을 들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강사들의 경우 계속근무한 기간도 1년 미만이고, 1주일 내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의 판단 기준은 퇴직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으로 판단해야 하고, 근무시간도 강의 준비 등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실제 강의시간이 아닌 강의시간의 3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어르신 드릴 추석 선물 포장해요 5일 광주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추석 명절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약 복용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뿡"...40대 체포

마약을 복용 하고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4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대상 위험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4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서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

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A씨의 가방에서는 7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가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을 했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투약 경위,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현직 국회의원 친척 구속

현직 국회의원의 친척이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5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우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 국회의원의 친척이다.

이날 A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정도로 미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 출석상황, 사

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박인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 후보 홍보를 위해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수사를 거쳐 적용 범 조항을 변경하고 공범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운전 도주하려다 경찰차 "뿡"...20대 입건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

다. A씨는 술을 마신채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우자 돌연 가속 페달을 밟아 A씨 차량 앞에 세워 둔 경찰차 후미를 충돌했다.

경찰차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